"오래 기다렸지?" 호랑이 재활군 복귀 초읽기

김상훈 장딴지 부상 말끔 5일 컴백 예고

이동현·채종범도 실전용 몸만들기 순조

6월의 첫 날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2군 경기가 열렸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의 무대 '퓨처스리그'였지만 그라운드를 누빈 이들의 면모는 화려했다. 신인 좌완 임기준이 선발로 나선 이날 김상훈·장성호·이현곤이 클린업 트리오를 이뤘고, 지난달 31일자로 엔트리가 말소된 최용규도 임한용과 테이블세터를 구성했다.

재활군에 머물던 투수 이동현과 외야수 채종범도 이날 2군에 합류해 몸을 풀었다. 경기에 앞서 오전에는 재활중인 김상현과 박기남의 모습도 보였다.

KIA는 지난해에도 서재응·이용규·김원섭·장성호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부상병동'으로 불렸다. 올해도 부상 경보가 발령됐다.

장성호는 트레이드 논란 속에 손목까지 좋지 않으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위기의 팀을 지탱하던 김상현·김상훈·박기남은 줄줄이 부상병이 되어 2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이현곤도 2군행 통보를 받으면서 KIA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1군을 이탈했다.

5월의 대반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6월을 맞는 KIA에게는 이들의 복귀 시점이 주요 관심사다.

주장 김상훈이 가장 먼저 2군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 장딴지가 좋지 않아 지난달 26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김상훈은 1일 처음으로 방망이를 잡았다.

김상훈은 3번 지명타자를 맡아 두 타석에 들어서 안타와 삼진을 하나 기록했다.

2일에는 2이닝 가량 마스크를 쓰고 수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수에서 최종점검을 받은 김상훈은 1군 엔트리 등록 가능 날인 5일 곧바로 1군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상훈은 1일 경기가 끝나고 선수단 회식을 주재하는 등 '주장'역할까지 소화하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해결사' 김상현도 본격적으로 방망이를 들었다. 수술 이후 근력운동에 주력했던 김상현은 1일 프리배팅을 하며 감잡기에 나섰다. 타격 밸런스 잡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김상현은 이날 장타를 날리며 여전한 파워를 과시했다.

박기남의 속도는 아직 더디다.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던 박기남은 물이 찼던 부위가 많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하고 있다.

심신 추스리기에 나선 이현곤은 1일 5번타자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볼넷 2개를 골라낸 이현곤은 2루타도 하나 터트리는 등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볼넷 남발로 질책성 강등을 당했던 사이드암 전태현도 2군 마운드를 제압하고 1군 콜업을 기다리고 있다.

2군에서 6월을 시작하게 된 주축 선수들의 복귀 러쉬가 KIA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훈〉

〈이현곤〉

〈박기남〉

〈김상현〉

목포서 하키 최강 가린다

4~13일 전국종별선수권…중·고·대·일반 45개팀 열전

제53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목포국제필드하키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하고 목포시와 전라남도하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여 중학부 16개 팀·고등부 15개 팀·대학부 6개 팀·일반부 8개 팀 총 45개 팀 선수 및 임원 120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목포시에서는 목포중앙여중, 목포여고와 여자일반부에 목포시청 하키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목포여고 하키팀은 2008년도 여고부 1위를 차지했으며 목포시청 하키팀은 2009년도 여일부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둔만큼 선전이 기대된다.

광주에서는 송광중·광주일고·조선대 하키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시는 오는 7월 '2010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9월 '제38회 아시아학생축구(U-18)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목포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최경주 3년만에 정상탈환 도전

내일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티샷

양용은·노승열·안병훈도 동반 출전

'완도탱크' 최경주(40)가 3년만에 '메모리얼 토너먼트' 정상에 도전한다.

최경주는 3일(한국시각) 밤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7265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출전한다.

2007년 이 대회에서 니클라우스로부터 우승트로피를 건네 받았던 최경주는 시즌 평균 타수 3위(69.61타)를 달리는 등 예전의 샷 감각을 완전히 회복해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세차례 출전해 두차례 컷 탈락했던 양용은(38)은 이번 기회에 이 코스와 악연을 끊기 위해 샷을 가다듬고 있고 한국의 영건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과 안병훈(19)도 특급대회 출전 기회를 잡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최근 부진을 털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자 한다. /연합뉴스

월드컵 '한국戰' 때 프로야구 경기 앞당겨

12일 KIA-LG전 오후 4시

17일 경기는 오후 4시30분

2010 남아공월드컵이 열리는 12일과 17일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앞당겨진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일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야구와 축구를 모두 관전할 수 있도록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12일과 17일 프로야구 경기를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의 첫 대결이 벌어지는 12일 프로야구 시작시간은 오후 5시에서 4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KIA와 LG의 경기는 오후 4시 시작된다.

아르헨티나와의 예선전이 진행되는 17일에는 오후 4시 30분에 프로야구가 치러진다. 이날 KIA는 대전을 찾아 한화와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자공고 진성태 청소년배구대표 뽑혀

광주전자공고 배구팀 진성태(센터)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혔다.

진성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제22회 아시아퍼시픽컵 남자배구대회에 출전한다. 대한배구협회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 코칭스태프와 선수 12명을 1일 확정, 발표했다.

홍해천(송림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차상현 전 남자국가대표팀 트레이너가 코치로 뽑혔다. 주장 전광인(성균관대) 등 대학생 6명과 고등학생 6명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22회 아시아퍼시픽컵 남자배구대회 ▲감독 = 홍해천(송림고) ▲코치 = 차상현(대한배구협회) ▲선수 = 전광인 심경섭(이상 성균관대) 이광인(경희대) 송희채(남성고) 손현종(문일고·이상 레프트) 송준호(홍익대·라이트) 이민규(송림고) 양준식(인하대·이상 세터) 진성태(광주전자공고) 우상조(송림고) 박원빈(옥천고·이상 센터) 정성현(홍익대·리베로)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창호, 7개월만에 세계대회 개인전 승리

日 이야마 꺾고 TV아시아 4강행

이창호가 7개월만에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승리를 챙기며 TV아시아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창호 9단은 1일 일본 교토시 쿄토호텔 오쿠라 별장에서 열린 제22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일본대표로 출전한 이야마 유타 9단을 맞아 백으로 270수만에 5집반승을 거뒀다.

제28기 바둑왕전 우승자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 이창호는 21살의 일본 명인 이야마 9단을 맞아 초반부터 착실한 실리작전을 구사하며 침착하게 반면을 운영하여 완승을 이끌어냈다.

이날 승리로 이창호는 지난해 11월 LG배 준결승에서 중국의 퍄오원야오 5단을 이긴 후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7개월 만에 승리를 맛봤다.

이창호는 그동안 총 15차례 대회에 참가해 3차례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250만엔(3300만원)이다. /연합뉴스